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사용되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써 인간의 건강에 피해를 생기게 하는 우려가 있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려고 있는 것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난연가공제, 방충가공제 및 위생가공제의 일부와 수지가 공제에 있어서 미반응이라던가 유리 또는 불순물질인 폼알데히드가 규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출생후 24개월 이내의 유아용품 의류(기저귀, 기저귀 커버, 턱받이, 내의 침대, 장갑, 양말, 중간 옷, 외의, 모자, 잠옷)는 수축을 방지하기도 하고 주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지가공을 한 잔류 포르말린의 양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아니면 안된다. (시료 1g에 75이하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어 있다.

또 우리가 주위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구조, 재질, 사용 상황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특히 위해를 미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그러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의 기준을 정함과 더불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검사기관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 요즘은 법의 규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의 행동의사로서 지구에 친숙하고 사람에게 숙부드럽다고 하는 에콜로지 지향이 높아지고 있다. 섬유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고 고염제를 사용하지 않는 지구와 사람에게 숙부드러운 유기재배면(Organic Cotton) 면포의 바이오 정련, 염료를 사용하지 않는 Colored Cotton,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목초지에서 사육한 양으로부터 취한 사람에게 숙부드러운 울, 자연의 허브염색, PET병의 리사이클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웨터, 물가의 새에게 피해를 막는 분해성 낚시줄, 인체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UV Cut 섬유, 산성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성 컨트롤 섬유, 유조선의 원유 유출 오염대책을 위한 오일펜스, 토양 미생물의 활동으로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생분해성 섬유 등, 에콜로지를 의식한 새로운 제품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

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편리성, 쾌적성의 추구는 점차 고도한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여 가는 배경에는 소재의 다양화가 있고 결과로써 가정에서는 입수할 수 없어 세탁소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품도 늘어나고 있다. 클리닝 용제의 폐액이 환경을 오염하는 것으로써 드라이클리닝이 문제시되고 있는 오늘날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세탁할 수 있는 이지케어 울소재라던가 실크 소재의 개발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섬유소재에 한정하지 않고 식품이나 주거환경 문제 등 사회생활 전체를 고려하는 데도 에콜로지 추구는 금후에도 계속 연구되는 최우선의 테마로써 새로운 섬유의 개발도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